

새로 서는 군산불교 도약 다짐

군산포교 중흥·군산발전 기원 조찬법회 봉행



1월 15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봉행된 군산발전 조찬법회서 군산지역 불자들은 군산불교 중흥을 다짐했다.

단위면적당 교회 밀도가 가장 높은 전북 군산시 불교가 경인년을 맞아 새 도약을 다짐했다.

군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허양)는 1월 15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경인년 신년하례를 겸한 '군산발전 조찬법회'를 봉행하고 군산포교 중흥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군산사암연합회 회장 재훈 스님과 관음사 재곤 스님, 흥천사 지환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 내원암 자인 스님, 정안사 정안 스님 등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이래범 시의장, 문원의 교육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군산불자들은 법승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눈빛 하나, 몸짓 하나, 손짓 하나에도 사랑을 담아 따뜻한 가슴을 지닌 불자로 생활하겠다"며 "새만금 중심인 군산시민이 화평하며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와 정진의 힘으로 신명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원했다.

재훈 스님은 법어에서 "세상을 덕으로 다스리면 모래밭에 금을 그어도 그 누구도 집범하지 못하며 권세로 다스리면 만리성을 쌓아도 침범하는 자가 있다"는 의상 대사의 말씀이 있다"며 "서로 포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손잡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지역 대표사찰 가운데 하닌인 군산 동국사(회주 재훈·주지 종명)는 지역불교를 선도하는 전방도량으로의 탐바꿈을 선언하고 나섰다.

군산 동국사는 1월 17일 50여 가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동국사 일요가족법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동국사 대중은 매주 일요일마다 계종별·연령별·직능별 일요법회를 순차적으로 발족시키기로 하는 등 이웃종교에 비해 취약한 군산지역 불교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법회에서 동국사 회주 재훈 스님은 "그동안 한국불교는 치마불교라

는 오명을 들어왔다"며 "오늘 가족법회 창립을 계기로 불교의 대중화, 가족중심의 법회 활성화를 통해 기도와 수행정진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국사 총무 겸법 스님은 "음력중심의 법회를 진행하다보니 직장인과 학생들의 법회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일요가족법회의 창립을 계기로 기존의 칠성회, 금강회 등 신행모임과 군산교도소 불자모임인 수불회, 거사불자 모임인 감포회 외에 어린이 청소년법회 직장법회 등 계층별 직장직능별 일요법회를 순차적으로 창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전문성을 지닌 신도조직을 활성화해서 서해 도서지역에 의료봉사, 법률자문, 이·미용봉사 등을 펼쳐 불교의 대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 동국사는 군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일제 강점기에 창건한 국내 유일의 일본식 건물을 보유한 사찰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사무국장 이재언

“부처님 일 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미래의 주역을 흔히 청소년이라 말한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틀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없거나 부모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기성세대의 잘못을 자녀가 떠안고 살아온 것.

1080배를 했다. 끝까지 1080배를 마친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 다수는 108배만 해도 손 사레를 찼다. 힘든 것은 피하고 편한 것을 찾는 아이들의 습성 때문이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 포교사는 수행과 기도 프로그램을 위주로 지도했고, 차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재언 포교사는 1986년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군 제대 후 청년회 활동을 하며 많은 부서의 장을 맡으며, 신심하게 활동했다. 그때의 힘들이 지금 포교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결혼 가정에서 자라며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사무국장 이재언(사진) 포교사이다.

이재언 포교사를 만나기 위해 그가 근무하는 광주 향림사 신용협동조합을 찾았다. 이 포교사는 향림사 신용협동조합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재언 포교사의 주요활동무대는 광주고통정보산업학교이다. 이른바 '소년원'이라 불리웠던 곳이다. 이 포교사가 이곳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향림사 천운 스님의 권유가 컸다.

광주고통정보산업학교를 처음 찾았을 때, 이재언 포교사는 "처음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자신감은 있었다. 의욕도 넘쳤지만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릴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 포교사는 "지금 부처님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싹을 틔울 것"이라며 "포교는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고통정보산업학교 활동 초창기에 이재언 포교사는 법회 시간인 2시간 가량을 이용해

이재언 포교사는 "청년회의 등반이 역할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최근에는 동년회를 구성했다. 자신이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청년회에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었다.

최근 이재언 포교사는 큰 소임을 맡았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사무국장 직책이다.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100여 포교사를 돕고 조직화하는 일을 맡은 것이다.

"침체된 조직을 복원하고, 활동하는 곳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포교사의 활동은 이제 시작이다. 30년 가까이 청년회와 포교현장에서 깨우친 그의 노하우가 발휘될 때가 될 것이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사찰문화해설, 염불, 자원봉사, 군포교, 교도소, 경찰, 직장직능, 어린이포교 등 각 팀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6대 집행부의 한 일원으로 각 팀을 활성화하고, 각 포교사기 능력을 발휘하여 포교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소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재가불자들의 '섬 포교단' 출범

31일, 신안군 암태도서 첫 불교행사 계획

전남의 서해에 위치한 신안군은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자치단체이다. 안타깝게도 이곳은 부처님 가르침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불교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곳 서남 해안권 도서지역의 불교활성화를 위해 재가불자들이 '섬 포교단'을 출범시켜 눈길을 끈다.



신안 암태도의 노만사 모습.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은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관), 불교기독교스 카일라스(대표 이진중),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 파라마리타 광주전남지역단, 동원 광주지부 등 지역 신행단체와 공동으로 '섬 불교 포교단'을 결성하고 공동활동에 들어간다. 섬포교단은 첫 사업으로 1월 31일 신안군 암태도에서 의료, 떡국공양, 연예인초청 공연, 미용봉사, 연지조성, 겨울불교학교 등을 펼칠 예정이다. 열악한 신도여건으로 자체적으로 불교행사를 치를 수 없는

이곳에 광주의 재가불자들이 지역 사찰과 함께 열린불교마당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불교진흥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암태도에 하나뿐인 사찰 노만사(주지 범도)와 공동으로 암태면에 자리한 게이브불장과 노만사에서 '노만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첫 행사를 연다.

첫 행사에 앞서 이준엽 원장은 "호남의 불교가 열악한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섬지역은 더 말할 것 없

이 심각하다. 더욱이 이 지역은 신도나 사찰재정도 미약하여 들과귀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섬포교 활성화에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노만사 주지 범도 스님도 "섬 주민에게 사찰은 정진적 지주이자 마음의 고향이었으나 타종교에 밀려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불자들이 섬지역 사찰에 관심 갖고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자비신행회와 사찰전문음식점 주자타에서 마련한 점심공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의 공연, 광주 미용아카데미 봉사단의 미용봉사, 불자 의료진이 펼치는 의료봉사와 광주전남 포교사단이 노만사에 연꽃방죽을 조성할 예정이다. (062)383-353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희망의 돼지' 성황리 마감

독거 어르신 위한 무료 급식 지원 예정

고창군노인복지회 관(관장 무광)은 2009년 후원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6-12월 진행된 '희망돼지저금통 캠페인'을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희망돼지저금통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 253만1170원은 지역 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사업으로 쓰일 예정이다.

후원금은 고창초등학교 학생들이 용돈을 아껴 모금된 64만1100원과 복지회관 복은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모은 149만5900원, 일반 개인에 의해 분양되어 모금된 39만4170원 등이다



무광 스님(오른쪽)이 희망의 돼지를 들어보고 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관장 무광 스님은 "희망돼지저금통 모금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관계자는 "2010년에도 '희망돼지저금통 캠페인'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첨단 원적외선 선상 발열체를 이용한 DC담요...

원적외선 온열담요



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

시험성적서

- 원적외선 열화상 인증서 획득 (2005. 1. 25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원)
- 원적외선 방사율(90%)시험 인증서 획득 (2005. 1. 25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원)
- 탈취시험 인증서 획득 (2005. 1. 25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원)
- 전지파 무해 시험성적서 획득 (2005. 2. 1 한국전자파연구원)
- 항공시험 인증서 획득 (2005. 2. 25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원)
-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획득 (2005. 1. 25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소)

특허받은 기술력!

- ▶ 탄소섬유사·제조장치 특허 제10-0715361호
- ▶ 탄소섬유사·제조공정 및 이로부터 제조된
- ▶ 탄소섬유사 특허 제10-0725189호
- ▶ 발열물질특허(천연광촉 음이온) 특허 제10-0805271호

원적외선 발열섬유재

유해전자파 걱정없이 편안한 숙면 취할 수 있다. 간이매트 및 담요이불처럼 소파, 바닥, 침대 등 어디서나 사용가능합니다. 최첨단 원적외선 선상발열체(Calober)를 이용한 DC제품입니다. 원적외선 복사열로 따뜻함이 2배 천연광촉 음이온 발생 효과가 나타납니다. 초 절전형으로 난방비 최대 4배까지 절약(전기장판 1/4)이 되며 절전효과가 뛰어나습니다.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90%)과 공명이, 집먼지 세균의 항균 및 악취 탈취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불빨래, 물빨래가 가능(세탁기 사용)



- Ⓐ 담요(차량, 가정용) ₩60,000
제품사양 : MA-DC-1000
원자재 : Calober, EF-Velboa
규격 : 75cm×160cm
제품구성 : 담요+시가잭(아답터, on/off스위치)
정격전압 : 220V/60Hz, DC12V/24V
- Ⓑ 무릎담개, 쿠션 (차량, 가정용) ₩40,000
제품사양 : MA-DC-2000
원자재 : Calober, EF-Velboa
규격 : 60cm×70cm
제품구성 : 무릎담개+시가잭(아답터, on/off스위치)
- Ⓒ 무릎담개, 쿠션 (AC제품 220V가정용) ₩35,000
원자재 : Calober, EF-Velboa
규격 : 60cm×70cm
제품구성 : 무릎담개+아답터, on/off스위치
원산지 : 대한민국



시가잭



아답터 on/off스위치

(주) 일 승

서울 강동구 길동 415-11 한솔브릿지 110호
TEL : (02) 798-3797 / FAX : (02) 744-6541
H.P : 011-9883-6507 / 010-2957-3110